

한국불교용어의 로마자표기에 대하여

장은화(동국대학교 선학과 박사과정)

〈차 례〉

- | | |
|------------------|----------------------|
| I. 머리말 | IV. 한국불교용어의 로마자표기 |
| II. 상이한 로마자표기 사례 | 1. 표기의 기준 |
| III. 한글의 로마자표기법 | 2. 'Seon'인가 'Zen'인가? |
| 1. 매균 - 라이샤워 방식 | 3. 띄어쓰기 |
| 2. 문광부 방식 | 4. 대문자 사용 |
| 3. 인명의 표기 | V. 맺음말 |

국문요약

본고의 목적은 한국불교용어의 로마자표기 현황을 검토하고, 아울러 현행 규정과 모순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리고 현재 서구 학계에서 통용되는 한국불교의 로마자표기 사례들을 비교·분석하여 필자 나름의 세칙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필자는 근년의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 등재된 불교관련 논문의 로마자표기 사례를 분석하여 인명, 지명, 개념어 등의 로마자표기가 일관성 없이 사용되는 사례를 지적해보았다. 우선 필자는 한국의 표준 표기법인 문광부 방식과 해외에서 많이 사용되는 매균 - 라이샤워 방식을 제시하여 두 방식의 차이를 명확히 제시하면서 아울러 두 방식의 인명표기가 다른 점도 摘示 해 보았다.

현행 문광부 방식은 띄어쓰기나 대문자 표기 규정이 없는데 불교표기에서는 이런 규정이 꼭 필요하다. 따라서 한국어 자모의 표기는 문광부 방식으로

하되, 띄어쓰기 등의 통사규칙은 한국어뿐 아니라 서양언어의 관습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했다. 또한 원지음표기의 원칙을 인명·지명의 고유명사뿐 아니라 일반 개념어에도 확장해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을 밝혀 보았다. 이어서, ‘한국 禪’의 적절한 로마자표기를 알아보면서 ‘Seon’과 ‘Zen’의 두 표기의 차이를 분석해 본 후 ‘Seon’이 더 적합함을 논증해 보았으며 더불어 ‘간화선’, ‘화두’ 등 한국 선과 관련된 어휘에 대한 표기에 대해서도 바람직한 기준을 고찰해 보았다. 다음으로 통사적인 원칙으로서 띄어쓰기와 대문자 사용에 대한 원칙을 제시해 보았으며 결론에서는 올바른 로마자표기의 기대효과를 정리해 보았다.

주제어: 불교용어, 로마자표기, 매륜 - 라이샤워, 한국선, 간화선, 원지음표기.

I. 머리말

동서양의 불교학계가 교류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언어의 장벽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지만 적어도 로마자(Roman alphabet)라는 문자를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불교학계야말로 이 로마문자의 가장 큰 수혜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로마자를 통해서 비로소 이전에는 접근할 수 없었던 산스크리트어, 팔리어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이 로마자를 통하여 한자, 티베트어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반도 세울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전 세계인이 공유하는 문자체계인 로마문자를 통해서 불교 교학연구에 필수적인 이들 고전 언어에 학자들이 접근할 수 없었던들 현재와 같은 불교 교학의 국제적 교류는 불가능할 것이다. 몇 년 전에는 인도네

시아의 소수 민족인 찌아찌아족이 한글을 공식문자로 삼기로 했다는 낭보가 전해지기도 했는데 이들도 이 로마자를 통해서 한글을 배운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이 로마문자는 한국불교를 전 세계에 알리는 데 더 없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로마자를 사용함으로써 한국불교의 사상과 문화는 한국어와 한글이라는 언어의 틀을 벗어나 세계인에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이다. 로마문자는 영어를 포함하여 전 세계의 64개 언어가 채택하고 있는 문자체계라고 한다.

한국불교는 1,700여 년이라는 장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서구 사회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가 근년에 들어 국제적인 교류와 학술대회가 빈번히 열리고 있으며, 특히 간화선의 세계화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어 있다. 조계종에서는 미국 동부에 해외교구를 신설하기도 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불교의 학술적 담론은 아직 한국어라는 지역과 한국어라는 언어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지만 시대적으로 볼 때 그 어느 때보다도 해외교류의 의지가 강하게 표출되고 있는 요즘 한국불교의 용어의 적절한 로마자표기에 대해서도 학계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국불교의 역사 속에서 여태까지 한 번도 이런 논의가 진행된 적 없었고 또 그 역사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기반이기도 하므로 올바른 표기법에 대한 담론 형성은 더욱 필요하다. 미국에 전파된 지 1세기가 지난 일본 선불교의 경우 ‘젠(Zen)’을 위시해서 ‘로시(roshi)’, ‘젠도’ 등 그 주요 용어가 영어사전에 오를 정도로 일반화되어서 이제는 일본어나 한자를 병기하지 않고 로마자표기만 가지고도 그 의미가 통할 정도다. 한글의 로마자표기 방안은 매륜 - 라이샤워(1939)가 최초였으며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국어의 로마자표기법(2000)’이다. 이것은 한국의 공식 로마자표기법으로서 학계, 언론, 문화재 안내판, 도로표지판 등 거의 모든 영문표

기의 원칙이 되고 있다. 공표된 지 10여 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찬반 양론이 끊이지 않고 개정의 목소리도 높지만 그래도 서서히 정착되어 가는 듯하다. 국내 불교학계에서도 문광부의 표기법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얼마 전 한국불교학회에서 “불교학술용어표준안”을 내놓았다. 그것은 “불교 학술용어를 표준화하여 그것을 학술용어의 기준으로 삼고, 또 저마다 다르게 표현하여 생기는 혼란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추진한”¹⁾ 것으로서 불교의 대표적인 인명, 지명, 서명, 개념어들을 선정하여 팔리경전과 산스크리트경전을 기준으로 한글 표준화작업을 진행한 것인데 이때 한국불교의 인명, 서명도 일부 선정되었다. 실제 로마자 표기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지만 한국불교학계의 대표적인 학자들이 협동하여 이런 결과물을 내놓았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 한국 불교용어 로마자표기의 세부규칙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정된다면 매우 바람직하리라고 본다. 상기의 용어표준안 작업이 교육인적자원의 시책 하에 행해진 것이라면 로마자표기 표준안은 불교학계 내부에서 자발적으로 발의되고 또한 본고를 통해 그런 논의가 촉발되기를 기대해 본다.

본고의 목적은 한국불교용어의 로마자표기 현황을 검토하고, 현재 서구 학계에서 통용되는 한국불교의 로마자표기 사례들을 비교·분석하여, 현행 규정과 모순되지 않는 범위에서 필자 나름의 통사적인 세칙을 제시하는 데 있다. 글의 구성은 I. ‘서론’을 거쳐, II. ‘상이한 로마자표기 사례’에서는 근년의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 등재된 불교 관련 논문의 로마자표기 사례를 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고찰해 보았으

1) 이평래, 「불교학술용어표준화사업의 미래상」, 『한국불교학』 제39집(서울: 한국불교학회, 2004), 2면.

며, Ⅲ. ‘한글의 로마자표기법: 문광부 방식과 매균 - 라이샤워 방식 그리고 인명표기’에서는 불교용어 표기를 중심으로 두 방식을 비교·고찰하고 아울러 인명표기의 차이점도 摘示해 보았다. 이어서 Ⅳ. ‘한국불교용어의 로마자표기’에서는 첫째, 표기의 원칙으로서 한국어의 특성과 서양언어의 특성을 함께 반영해야 하고, 또 원지음표기에도 유의해야 함을 역설해보았고, 둘째, ‘한국 禪’의 올바른 표기는 Zen이 아니고 Seon이 되어야 한다는 논거를 제시하면서 ‘간화선’, ‘화두’ 등의 개념어에 대한 일관성 있는 표기방안을 논의하였고, 셋째, 현행 로마자표기법을 바탕으로 띄어쓰기와 대문자 사용규칙을 제시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Ⅴ. ‘결론’에서는 로마자표기의 기대효과를 정리해 보았다.

본고에서 참고한 한국불교용어의 로마자표기 사례는 1. KCI 등재 불교논문의 초록자료, 2. 랭카스터(2004)의 고려대장경 영문목록, 3. 디지털불교사전(Digital Dictionary of Buddhism), 4. 간화선 국제학술대회 자료집(2011), 5. 미국국회도서관의 「한국어의 로마자표기와 단어 분할(Korean Romanization and Word Division)」(1997), 6. 버스웰(1983)의 『한국 선, 지눌전서(The Korean Approach to Zen: The Collected Works of Chinul)』 등이다. 이 중 국내 학술지의 영문초록은 학술적 논의의 대상이 아니어서 그런지 영역된 용어와 내용이 많이 미흡했었지만 최근에는 충실한 초록이 많이 나와서 고무적이었다. 버스웰(1983)에서는 국내 연구결과가 비교적 풍부하게 인용되어 있고, 랭카스터(2004)에는 대장경의 모든 경전명칭을 영어로 번역하고 로마자표기도 해놓았기 때문에 논문제목이나 경전의 명칭을 일관성 있게 로마자표기의 원칙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한국불교의 용어를 서양인 대상으로 제시하는 방법은 번역, 음역²⁾ 등의 방식이 있지만 본고의 논의대상은 순전히 로마자표기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이런 표기사례와 실제 논문

의 질은 상관관계가 전혀 없고 또 그런 문제는 필자의 관심 밖이다.

Ⅱ. 상이한 로마자표기 사례

KCI에 최근 등재된 불교관련 논문을 검색해보니 다음과 같은 로마자표기가 나왔다.

〈사례 1〉 인명, 지명 로마자표기 사례.

조선 Chosun, Jo - seon, Choseon, Cho shen; 초의 Choeui, Ch'oui; 도의국사 Dowui Guksa; 백파궁선 Paekpa - Keungseon, BaekPa GeungSon, BACKPA - GUNGSUN, Paekpa; 일연 Iryeon 등.

위 로마자표기들은 불교학계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문광부 방식이나 매균 - 라이샤워 방식과 다르고 오히려 이 두 가지 방식이 혼합표기 되었다. 로마자표기 규정이 자주 바뀌다 보니 일어난 현상인 것 같다. 이와 같은 혼합표기는 예외적으로 몇몇 경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흔한 현상이다. 사실상 동일한 인명이나 지명이 글쓴이에 따라서 문광부 방식으로 표기되기도 하고, 매균 - 라이샤워 방식으로 표기되기도 하고, 다양하게 혼합표기 되기도 하는 사례가 드물지 않다.

-
- 2) 音譯이란 원래 한자를 가지고 외국어의 음을 나타내는 일로서, 'Asia'를 '亞細亞', 'club'을 '俱樂部'로 표기하는 것 따위를 의미하지만, “한 나라의 음을 다른 나라의 글자 음을 빌어서 적는 것”이라는 의미로 확장해서 사용하기도 한다. 필자도 음역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따라서 한자를 한글로 표기하는 일이나 한글을 로마자로 표기하는 것도 음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인물의 이름과 지명의 일관성 있는 표기는 불교용어의 개념을 정착시키는 데 꼭 필요할 것이다. 필자는 올바른 표기법의 정착을 위해서는 위 두 표기법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하여 Ⅲ 장에서 이 두 표기법을 소개해보았다.

〈사례 2〉 ‘간화선’, ‘화두’, ‘선’ 등 개념어의 로마자 표기사례.

간화선 Ganhwa Seon, Ganhwa - Seon, Ganhwa Meditation, Ganhwa - seon, Kanhua Chan, Kan - Wha - Seon, Kan - hua Meditation, K'an - hua Ch'an, Kanhwassŏn, Kanhwa[Hwadu] Seon, Kanhwa Seon, Ganhwa Sŏn, khanwha - zen, Khanwha - sŏn, Gan - Hua Seon, KouanZen, kanhwassŏn, Kanhwa Zen, Koan Hwa Seon, Kanhwa - Zen, ganhwason, Canhwa - Seon; 화두 Wha - Doo, Hwa - Du, wha - du, whadu; 중국의 선불교 Zen Buddhism in China; 효봉선사 Zen Master Hyopong; 會通禪 Hoetong - Seon; 普照禪 Bojo - Seon; 定慧結社 Cheong Hye Kyul Sa 등.

‘간화선’의 로마자표기가 무려 20개가 넘는다는 것은 정착된 표기법의 부재를 여실히 보여 준다. 서구 불교학계에서 일반적으로 kanhua chan, kanhwa Sŏn³⁾으로 표기하는 것과 극명하게 대조된다. 언어의 차이가 사유의 차이를 반영한다고 가정해 본다면 ‘간화선’을 표기하는 방법이 이렇게 다양하다는 것은 곧 간화선에 대한 개념도 그만큼 다양한 것은 아닐까? ‘화두’와 ‘禪’의 로마자표기 역시 정착되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다. 특히 禪의 표기는 뚜렷한 기준 없이 Seon이나 Zen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 같다. 필자가 보기에 Zen이란 말은 정체성이 매우

3) 동국대 불교학술원 종학연구소(편), 『제2회 간화선 국제학술대회: 간화선, 그 원리와 구조』(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2011), 제1권 87 - 88면, 190면; 제2권 171면. 서구학자들 Peter N. Gregory, Robert Buswell, John Jorgensen 등의 표기 사례다.

불분명하다. 한국의 선을 Zen이란 표기에 담기에는 부적절함을 뒤에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 간화선과 화두에 대한 논의도 아울러서 말이다.

〈사례 3〉 논문제목 및 書名의 로마자표기 사례.

「高麗朝各種道場의 密敎的 性格」 “Koryŏ cho Kakchong Toryang ūi Milgyo chŏk Sŏnggyŏk”; 新羅下代의 禪傳來 “Silla Hadae - ui Seon Jeonrae”; 금강경 Geumganggyeong, Geumgang gyeong 등.

cf. 「普照: 定慧雙修의 具現」 “Pojo: chŏnghye ssangsu ūi kuhyŏn”

논문제목이나 전적의 명칭에 대한 로마자표기도 학자들마다 다르게 사용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국내학자들뿐 아니라 외국불교학자들 간에도 저마다 다르다. 필자는 띄어쓰기와 대문자표기에 유의하면서 그 차이를 살펴보았다. 특히 띄어쓰기에서는 ‘- 의’, ‘- 에 대한’ 등의 助詞, ‘再 -’, ‘- 적’ 등의 접사 등의 표기가 서로 달랐고, 대문자표기에서는 논문이나 저서의 제목에서 각 단어를 모두 대문자나 소문자로 표기하는 등 차이가 있었다. 語末의 단음절 접미사의 처리도 제각각이다. 논문제목이나 서명의 표기는 한국어의 특성만 표기에 반영하기보다는 서양학자들의 표기사례를 참고하여 정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이런 문제는 뒤에서 띄어쓰기와 대소문자 사용 부분에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

Ⅲ. 한글의 로마자표기법 : 매륜 - 라이샤워 방식과 문광부 방식 그리고 인명표기

「한글의 로마자표기법」은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다양한 방법이 제기되어 왔다.⁴⁾ 1948년 정부수립 이후 현재까지 네 차례 개정되었으

며 현행 표기법도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현재 국내의 불교학계에서는 두 가지의 표기방식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문화관광부 방식(2000)과 매쿰 - 라이샤워 방식(이후 ‘MR방식’으로 표기)⁵⁾이 그것이다. MR방식은 제정된 이래 큰 변화 없이 현재까지 이르고 있으며 외국의 학계, 도서관 등에서 한글의 로마자표기법으로서 정착되었지만 국내에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문광부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다만 국내 불교학계에서는 두 방식이 혼용되는 경우가 많다. 한국 불교의 연구 성과가 서구 불교계와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서는 이 표기법의 차이가 극복되어야만 할 것이다. 소통의 능동적 주체는 결국 서구의 학자가 아니고 국내 불교학자라고 본다면 당연히 이 표기상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능동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본다.

4) 간략하게 그 연혁을 살펴보면 ‘매쿰 - 라이샤워 방식(1939. 전사법)’, ‘한글을 로마자로 적는 법(1948. 절충식)’, ‘한글의 로마자 표기법(1959. 전자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1984. 전사법, MR방식 수용)’, ‘국어의 로마자표기법(2000. 전사법)’ 등으로 로마자표기법이 변천되었다. 각각의 표기법에 따라서 ‘전주’라는 지명을 표기해보면 Chŏnju(1939), Chŏnju(1948), Jeonju(1959), Chŏnju(1984), Jeonju(2000)가 되니 불과 수십 년을 거치면서 너무 자주 바뀌었다. 현행 표기법을 불신하고 있는 외국인이 많은 것은 이렇게 잦은 변경 때문일 수 있다. 정희원, 「역대 주요 로마자 표기법 비교」, 『새국어생활』, 7권 2호, (서울: 국립국어연구원, 1997), 1 - 67면.

5) 매쿰 - 라이샤워 방식. 평양 숭실전문학교 교장으로 재직하였던 미국인 선교사 매쿰(G. M. McCune: 1918~1948)과 하버드 대학 대학원에서 일본사를 전공했던 라이샤워(Edwin O. Reischauer: 1910~1990)가 국내의 학자들의 협조를 얻어 제정한 것이다. MR 방식은 오늘날까지 영어권에서 한글의 로마자표기법으로 가장 널리 쓰이고 있다. 정식명칭은 「한국어의 발음에 의거한 로마자표기법」 “Romanization of the Korean Language, based upon its Phonetic Structure”이며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Vol. 29, Seoul 1939, pp.1 - 55에 실려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두 표기의 同異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 다음에 이를 제시해보았다.

1. 매륀 - 라이샤워 방식

MR방식은 라틴어 알파벳의 음가기준을 일본어의 헵번 방식⁶⁾과 중국어의 웨이드자일 방식⁷⁾과 마찬가지로 “모음은 이태리어방식으로, 자음은 영어방식으로” 하고 있다.⁸⁾ 즉, 로마자의 5모음 a, e, i, o, u는 이탈리아어 발음에 따라 우리말의 ‘ㅏ, ㅓ, ㅣ, ㅗ, ㅜ’의 표기에 고정시키고 있다. 로마자에 없는 모음 ‘ㅜ, ㅡ’는 각각 ö, ü 로 표기한다. ‘ㅜ’

6) 헵번식 로마자 표기법(Hepburn romanization)은 제임스 커티스 헵번(James Curtis Hepburn, 1815~1911))이 1887년 일영사전을 만들면서 일본어 발음을 로마자로 표기한 방식에서 유래한 일본어의 로마자 표기법이다. 이 표기법은 원래 1885년 로마자회에서 제안한 방식이었다. 헵번 방식은 그 후에 개정되어서, 수정 헵번식 로마자표기법이라고 한다. 수정 표기법은 표준식 로마자 표기법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http://en.wikipedia.org/wiki/Hepburn_romanization.

7) 웨이드 - 자일스식 로마자 표기법(Wade - Giles romanization)은 원래 서방세계를 위해 중국문자인 한자를 간단히 표기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이 표기법은 토머스 프랜시스 웨이드 경(Sir Thomas Francis Wade)이 창안했고, 캠브리지대학교 교수인 허버트 앨런 자일스(Herbert Allen Giles)가 『중영사전 Chinese - English Dictionary』(1912)을 발간하면서 수정했다. 자일스가 음절을 수정함에 따라 웨이드 - 자일스식이라고 불리게 된 이 표기법은 영어권 지역에서 학자들뿐만 아니라 비전문가들에게도 중국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은 음역법으로 인기를 얻게 되었고, 노르웨이어·덴마크어·독일어·이탈리아어·스웨덴어·스페인어·터키어·핀란드어 등으로 번역되었다. 중국인들은 중국어로 쓰이지 않은 출판물을 위해 중국 현지의 언어를 옮겨 적는 여러 가지 표기법을 실험했지만, 이런 표기법들은 1979년 좀 더 알기 쉬운 漢語拼音字母로 공식 대체되었다.

8) ROK p.125.

를 ‘ㄱ’와 구분하고 ‘ㅡ’를 ‘ㅍ’와 구분하기 위해서 소위 ‘반달표(breve)’를 o와 u 위에 첨가하고 있다.⁹⁾ 한글의 모음 21개를 로마자표기한 표는 다음과 같다.〈표 1〉

〈표 1〉 모음표 1 (MR 방식)¹⁰⁾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a	ya	ǒ	yǒ	o	yo	u	yu	ǔ	i

ㅘ	ㅙ	ㅚ	ㅜ	ㅝ	ㅞ	ㅟ	ㅠ	ㅡ	ㅢ	ㅣ
wa	wǒ	ae	e	oe	wi	ǔi	wae	we	yae	ye

자음의 경우, ‘ㄱ, ㄷ, ㅂ, ㅈ’는 어두나 어말에서는 k, t, p, ch로 적지만 모음을 비롯한 유성음(ㄴ, ㄹ, ㅁ, ㅇ) 사이에서는 g, d, b, j로 적음으로써 자음의 유성, 무성을 구별한다.¹¹⁾ 이에 비해서 ‘ㅋ, ㅌ, ㅍ, ㅊ’는 k', t', p', ch'와 같이 어긋점(apostrophe)을 붙여서 표기한다. 이름을 표기하는 데 적합한 간이 자음표기를 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표 2〉

9) ‘ㅓ’와 ‘ㅡ’를 ǒ와 ǔ로 표기하는 이유를 매륜과 라이샤워는 서양 사람들에게 ‘ㅓ’는 ‘ㅏ’와, ‘ㅞ’는 ‘ㅜ’와 비슷하기 들리기 때문이라고 했다. RKL p.12.

10) ROK p.128.

11) ‘ㄱ, ㄷ, ㅂ, ㅈ’을 단어 처음 위치에서 k, t, p, ch로 적는 이유는 서양 사람들에게 ‘ㄱ, ㄷ, ㅂ, ㅈ’이 k, t, p, ch로 들리기 때문이다. 서양 사람들은 무성음과 유성음을 민감하게 구별하는데 한국어의 ‘ㄱ, ㄷ, ㅂ, ㅈ’은 단어 처음 위치에서 무성음이기 때문에 g, d, b, j가 아니라 k, t, p, ch에 가깝게 들린다는 것이다. RKL p.27.

〈표 2〉 자음표 1 (MR 방식)¹²⁾

초성→ 종성↓		ㅇ	ㄱ	ㄴ	ㄷ	ㄹ	ㅁ	ㅂ
			K	N	T	(R)	M	P
ㄱ	K	G	KK	NGN	KT	NGN	NGM	KP
ㄴ	N	N	N'G	NN	ND	LL	NM	NB
ㄹ	L	R	LG	LL	LT	LL	LM	LB
ㅁ	M	M	MG	MN	MD	MN	MM	MB
ㅂ	P	B	PK	MN	PT	MN	MM	PP
ㅇ	NG	NG	NGG	NGN	NGD	NGN	NGM	NGB

초성→ 종성↓		ㅅ	ㅆ	ㅈ	ㅊ	ㅌ	ㅍ	ㅎ
		S	CH	CH'	K'	T'	P'	H
ㄱ	K	KS	KCH	KCH'	KK'	KT'	KP'	KH
ㄴ	N	NS	NJ	NCH'	NK'	NT'	NP'	NH
ㄹ	L	LS	LCH	LCH'	LK'	LT'	LP'	RH
ㅁ	M	MS	MJ	MCH'	MK'	MT'	MP'	MH
ㅂ	P	PS	PCH	PCH'	PK'	PT'	PP'	PH
ㅇ	NG	NGS	NGJ	NGCH'	NGK'	NGT'	NGP'	NGH

- * 1. 모음 사이에 오는 자음은 초성의 음가로 표기한다. 그런데 이때 예외적으로 ‘ㄱ’은 G, ‘ㄷ’은 D, ‘ㅂ’은 B, ‘ㅅ’은 J로 한다.
* 2. ‘쉬’는 SHWI로 표기한다.

예를 들어 ‘백제’를 로마자 전환할 경우, ㅂ+ㅈ+ㄱ+ㅅ+ㅊ로 자음과 모음을 나눈 다음, 초성 ‘ㅂ’은 자음표 초성 항목의 ‘P’, ‘ㅈ’는 모음표에

12) ROK p.128.

서 ‘ae’, ‘ㄱ’은 자음표의 종성 항목에서 ‘K’, ‘즈’은 자음표에서 초성 항목 ‘즈’에 일치하는 ‘CH’, 마지막으로 ‘ㄱ’은 모음표에서 ‘e’를 선택하여 ‘Paekche’가 된다.

2. 문광부 방식

문광부 방식¹³⁾은 MR 방식과 마찬가지로 국어의 표준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인터넷과 정보화의 시대에 맞지 않는다 하여 반달표 (˘)와 어갯점 (˙)을 모두 없앴다. 모음의 경우, ‘ㅏ’와 ‘ㅑ’를 ö, ü가 아니고 eo, eu로 적기로 했으며 자음의 경우, ‘ㄱ’, ‘ㄷ’, ‘ㅂ’, ‘즈’는 g, d, b, j로 고정하되, 자음 앞에서만 k, t, p, ch로 표기하도록 했다. 有氣音¹⁴⁾인 ‘ㅋ, ㅌ, ㅍ, ㅊ’는 k, t, p, ch로 통일했다. 모음과 자음의 표기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표 3, 4〉

〈표 3〉 모음표 2 (문광부 방식)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a	ya	eo	yeo	o	yo	u	yu	eu	i

ㅘ	ㅙ	ㅚ	ㅜ	ㅝ	ㅞ	ㅟ	ㅠ	ㅡ	ㅢ
wa	wo	ae	e	oe	wi	ui	wae	we	yae

13) 2000년 7월 문화관광부에서 고시된 현행 로마자 표기법이다.

14) 무성폐쇄음(voiceless stops)이 파열될 때에는 귀에 들릴 정도의 공기의 분출을 수반하게 되는데 그 음을 유기음이라고 한다. 한국어에서는 어두에 나타나는 ‘ㅋ, ㅌ, ㅍ, ㅊ’ 등이 이에 속한다.

〈표 4〉 자음표2 (문광부 방식)

초성→ ↓종성		ㅇ	ㄱ	ㄴ	ㄷ	ㄹ	ㅁ	ㅂ
			g	n	d	r	m	b
ㄱ	k	g	kg	ngn	kd	ngn	ngm	kb
ㄴ	n	n	ng	nn	nd	ll(nn)	nm	nb
ㄹ	l	r	lg	ll	ld	ll	lm	lb
ㅁ	m	m	mg	mn	md	mn	mm	mb
ㅂ	p	b	pg	mn	pd	mn	mm	pb
ㅇ	ng	ng	ngg	ngn	ngd	ngn	ngm	ngb

초성→ ↓종성		ㅅ	ㅆ	ㅈ	ㅊ	ㅌ	ㅍ	ㅎ
		s	j	ch	k	t	p	h
ㄱ	k	ks	kj	kch	kk	kt	kp	kh(k)
ㄴ	n	ns	nj	nch	nk	nt	np	nh
ㄹ	l	ls	lj	lch	lk	lt	lp	lh
ㅁ	m	ms	mj	mch	mk	mt	mp	mh
ㅂ	p	ps	pj	pch	pk	pt	pp	ph(p)
ㅇ	ng	ngs	ngj	ngch	ngk	ngt	ngp	ngh

위에서 ‘백제’를 MR방식으로 했을 때 Paekche로 표기되었으나 여기서 Baekje가 된다. 앞에서 KCI의 사례를 각각 MR방식/문광부 방식으로 표기해보면 조선 Chosŏn/Joseon, 초의 Ch’oŭi/Cho - ui, 도의국사 Doŭi/Do - ui Guksa; 백파공선 Paekpa Kŭngsŏn/Baekpa Geungseon; 보조지눌 Pojo Chinul/Bojo Jinul이 된다.

또한 앞의 사례에서 본 ‘간화선’의 로마자표기도 대부분 원칙 없는 혼합표기들로서 이런 표기들은 한글로 환원한다 해도 〈표 5〉에서 5번과 9번을 제외하고는 ‘간화선’의 음가가 나오지 않는다.

〈표 5〉 ‘간화선’의 다양한 로마자표기에 대한 한글변환

학술지의 ‘간화선’ 표기	문광부 방식으로 환원	MR방식으로 환원
1. Kanhua Chan	칸후아 찬	
2. Kan - Wha - Seon	칸 - 화 - 선	
3. Kan - hua Meditation	칸 - 후아 메디테이션	간 - 후아 메디테이션
4. K'an - hua Ch'an		칸 - 후아 찬
5. Kanhwason		간화선
6. Kanhwa Seon	칸화 선	간화 세온
7. khanwha - zen	칸화 - 젠	
8. Gan - Hua Seon	간 - 후아 선	
9. kanhwason		간화선
10. Kanhwa Zen	칸화 젠	간화 젠
11. ganhwason	간화손	

영미권 학자들에 의해 출간된 한국불교 저작물을 보면 모두 MR방식으로 표기되어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저작물을 통해서 MR방식은 해외 불교학계에서 더욱 확고해지고, 확대되고, 재생산되고 있으며 그 양상도 몇몇 주도적인 학자들의 선례를 따라가거나 아니면 저마다의 자의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표기법의 통일은 더없이 바람직한 일이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국내에서 아무리 훌륭한 연구 성과가 축적된다 해도 국내용으로 그치고, 해외 학술지나 학술대회 등을 통한 소통의 의지가 없다면 말이다. 필자는 KCI에 등재된 학술논문의 영문초록과 키워드 정보는 한국불교의 연구 성과를 전 세계에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본다. 제정된 지 12년 된 문광부의 표기법이 국내뿐 아니라 서구의 불교학계에 정착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무엇보다도 당사자인 불교학계의 적극적인 노력 여

하에 달려있을 것이다.

3. 인명의 표기

현행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3장 4항에는 인명의 로마자표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인명은 성과 이름의 순서로 띄어 쓴다.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을 허용한다.(()안의 표기를 허용함.)

(보기) 한복남 Han Boknam (Han Bok - nam), 홍빛나 Hong Bitna (Hong Bit - na)

이에 의하면 성과 이름은 순서대로 띄어 쓰며 그 사이에 쉼표를 넣지도 않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름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고 또한 음운변화를 막기 위해 하이픈을 넣을 수도 있도록 했다. 다시 말해서 이름의 표기에는 소리가 아니라 글자대로 표기해주는 전자법(transliteration)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다.¹⁵⁾ 이름의 표기는 MR방식과 문광부 방식이 동일하지만 다만 전자는 전자법이 아닌 轉寫法, 즉 소리대로 적게 되어 있다.¹⁶⁾ 인명에 대한 두 표기의 차이를 살펴보자.〈표 6〉

15) 이 점은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제1장 1항에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전사법(transcription)의 일반원칙에 대한 예외사항이 된다.

16) 그러나 인명 이외의 지명, 문화재명 등의 표기에서는 양자 모두 음운 변화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예) 속리산 Songnisan, 극락전 Geungnakjeon. 문화관광부,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문화 관광부 고시 제 2000-8호(2000. 7. 7.), 3장 4항 참조.

〈표 6〉 MR방식과 문광부 방식의 상이한 인명표기 사례

	MR방식	문광부 방식
一然 ¹⁷⁾	Iryŏn	Il - yeon
이인로	I Inno	I Inro
낙랑공주	Nangnang Gongju	Nak - rang Gongju
車雲輅	Cha Unno	Cha Un - ro
朴億年	Pak Ŏngnyŏn	Bak Eok - nyeon
韓伯倫	Han Baengnyun	Han Baek - ryeon

또한 ‘성의 표기는 따로 정한다.’ 그리고 ‘인명, 회사명, 단체명 등은 그동안 써 온 표기를 쓸 수 있다.’라는 조항을 두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규정된 표기법과 다르게 현실적으로 성명의 표기 시 성과 이름의 표기뿐 아니라 그 배열순서 또한 매우 다양하다.¹⁸⁾ 이 같은 차이는 “공공성을 띠고 있어 국가에서 통제가 가능한 지명 표기와 달리 인명은 각자 그것을 표기하는 개개인의 것이어서 어느 정도 자율성을 보장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완벽하게 통일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¹⁹⁾ 姓의 표기도 현행 표기법에 따르면 ‘이’씨는 I로, ‘오’씨는 O로, ‘김’씨는 Gim으로 적게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절대 다수가 각각 Lee, Oh, Kim으로 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대인의 이름표기에 대해서 현행 표기법이 유명무실한 상황이지만 과거의 인물을 표

17) 金一然(1206~1289)은 고려시대의 승려이며 삼국유사의 저자이다. 字는 晦然이고, 호는 睦庵.

18) 이를테면, ‘정’씨, ‘박’씨 같은 姓의 표기는 각각 Jung/Jeong/Chung, Park/Bak/Pak 등으로 다양하며, ‘홍길동’ 같은 이름의 배열순서 역시 Hong, Gildong; Hong Gil - dong; Hong, Gil - dong; Hong Gil Dong; Gildong Hong 등으로 다르다.

19) 정희원, 「성씨 표기안 제정 추진 경과 및 표기 시안」, (서울: 국립국어연구원 미출판물, 2009), 3면 참조.

기할 때만은 표기법을 따르자는 즉, 과거와 현대 인물의 표기를 이원화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실행 가능성이 높지 않다.

불교인명의 로마자표기 시 필자는 다음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과거 인물의 경우 송산스님의 Seung Sahn처럼 그 표기가 관례화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 로마자표기 규정대로 표기한다. 둘째, 중국인과 일본인의 이름은 한국어발음이 아닌 원지음 발음으로 표기한다.²⁰⁾ 한편 현행 외래어표기법에는 중국의 역사적 인물에 대해 한국어 한자음으로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한문을 한글로 표기하는 경우에 한하고, 서양인을 대상으로 하는 로마자표기의 경우에는 서구학계의 관례에 따라 중국어 원음으로 표기하는 게 합당하다고 본다.²¹⁾

IV. 한국불교용어의 로마자표기

필자는 로마자표기법이 한글을 영어가 아닌 로마자로 표기하는 규칙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한글을 표기하는 기호체계로서 로마

20) 물론 한국어의 한자 발음으로 표기해야 할 경우도 있다. 이를테면, 「대혜종고의 간화선에 대하여」라는 논문제목을 로마자표기 할 때는 “Daehye Jonggo ui Ganhwaseon e daehayeo”라고 인명도 한국어 한자발음으로 처리한다. 그렇지만 ‘대혜종고의 간화선’에 대해 서술하는 경우에는 “Dahui Zonggao’s kanhua Chan”이라고 원음표기하면 될 것 같다.

21) 예컨대, 중국의 법장스님(法藏 643~712)은 한글표기 ‘법장’으로 그리고 로마자표기 Fazang으로, 또한 고려시대의 법장스님(法藏 1351~1428)은 한글표기 ‘법장’ 그리고 로마자표기 Beopjang으로 그 국적의 원음에 따라 달리 표기하면 될 것이다.

자표기는 영어권뿐 아니라 비영어권을 포함하는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표기의 결과물은 영어권의 언어관습과 다를 수 있다. 그런데 또 한 편으로 영어는 불교계를 포함한 국제학계의 공통언어로서 정착되고 있는 이 시대에 한글의 로마자표기법이 영어와 무관할 수도 없다. 따라서 로마자표기법은 영어와 무관한 면도 있고 또 영어와 밀접한 면도 있다. 이와 같은 상호연관성을 고려해서 필자는 불교용어를 로마자표기 할 때는 두 가지 사항, 즉 한글과 영어의 특성을 반영하고 또 원음표기를 충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다음에서 그 논거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1. 표기의 기준

첫째, 한글자모의 로마자변환은 문광부 방식을 따르고, 이렇게 로마자 변환된 문자들이 모여서 구(句)나 문장을 이루는 통사적인(syntactic) 차원은 서양언어(구체적으로 영어)의 관습을 반영한다. 앞에서 살펴본 문광부 방식이나 MR방식에는 대부분 한글자모의 로마자변환 규정이 서술되어 있고 단어들 상호간의 통사규칙, 즉 띄어쓰기와 대소문자 표기규칙 등이 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통사규칙은 불교계 자체에서 정해야만 하는데 이때 한국어뿐 아니라 한자 및 서양의 언어관습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고 한글의 관례만을 고집한다면 그 전달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다. 실제로 이렇게 띄어쓰기를 무시하고 가독성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전형적 사례가 문화재청의 영문 문화재명 표기다. 이를테면, 보물 제572-1호 修禪社形止記는 Suseonsahyeongigi 라고 띄어쓰기 없이 표기되어 있다. 아마도 현행 로마자표기법에 명기된 ‘문화재명은 붙여 쓴다’라는 규정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²²⁾

로마자표기의 대상이 대부분 외국인임을 감안해 본다면 Suseonsa hyeongjigi 혹은 Suseon sa hyeongji gi 라고 단어를 나누어 표기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한국어 중심으로 제정된 표기규칙과 서구인의 언어습관이 불일치하는 또 하나의 사례는 산, 강과 같은 자연지형이나寺와 같은 사찰명 등의 고유명사 끝에 나오는 총칭명사다. 이를테면 고유명사 ‘조계사’를 로마자로 옮길 때 문광부 규정은 Jogyesa로 붙임표(-) 없이 붙여 쓰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서구의 학자들은 Jogyesa뿐 아니라 Jogye sa, Jogye Sa, Jogye - sa 등으로 띄어 쓰거나 붙임표를 사용하기도 한다. 한국어의 특성상 당연히 붙여 쓰는 것이 관례지만 서양의 언어관습에서는 이런 고유명사의 경우도 語末의 보통명사(혹은 접미사) 사(寺)를 분리해낸 다음 Jogye Temple과 같이 번역하여 표기하기도 하니 붙여 써야 한다는 일반원칙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이런 사례는 위의 경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아주 일반적인 현상이다. ‘-經’, ‘-史’, ‘-論’, ‘-疏’ 등의 서적명이나 ‘-殿’, ‘-각’, ‘-당’, ‘-루’, ‘-문’, ‘-교’ 등의 인공축조물과 문화재명칭에서도 널리 나타나므로 로마자표기 시에는 위의 규정을 완화하여 융통성 있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²³⁾

22) 문화재청의 문화재 영문명칭은 가령, 국보17호 ‘영주부석사 무량수전 앞석등’의 경우도 한글에도 명백히 단어 구분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Buseoksamuryangsujeonapseokdeung라는 한 단어로 표기하고 있어서 전혀 합당한 표기라는 생각이 안 든다. 동 영문홈페이지(<http://english.cha.go.kr>)에는 한국의 모든 지정문화재의 명칭을 이와 같이 띄어쓰기 없이 한 단어로 표기했다.

23) 2002년 서울시가 정한 「영문표기 사전」에는 “한글을 언어 및 발음체계가 상이한 로마자로 옮기기 위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만으로는 지명, 인명, 기관명, 문화재명 등 다양한 한글 명칭을 모두 영문으로 표기하기에 불충분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한 기준과 용례를 마련함. 그리하여 산, 강, 섬, 사

둘째, 표기의 원칙으로서 고유명사뿐 아니라 서명과 개념어 등도 原地音으로 표기한다.²⁴⁾ 원지음 표기와 관련하여 「외래어표기법」에는 표기를 이원화하도록 하고 있다.²⁵⁾ 곧 중국 근대(1911년 신해혁명 기준) 이전의 인물은 한국의 한자음으로, 그리고 그 이후의 인물은 중국 원음으로 그 표기의 기준을 달리 정한다는 것이다. 이런 규정은 표기를 이원화하는 근거 및 그 시기 구분도 정당성이 미흡한 것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불교학계에서 이 원지음주의는 객관적인 표기원칙으로서 잘 수용되고 있는 것 같다. 비단 인명뿐 아니라 지명, 書名 등에도 확대적용 되고 있으며, 불교의 종파나 여러 개념어 등에도 적용 가능하다. 예컨대 서구불교계에서는 ‘중국의 천태종’은 Chinese Tiantai Zong으로 이것이 한국과 일본으로 전파되어 문화적 변용을 거쳐 각기 독특한 종파로서 확립된 ‘한국의 천태종’은 한국의 원음인 Cheontae jong으로 ‘일본의 천태종’은 일본의 원음인 Tendai Shu로 각각 표기된다. 선종이나 정토종의 경우도 마찬가지다.²⁶⁾ 다만 논문의 제목을 로

찰, 교량, 문화재 등의 경우에는 그 명칭 전부(full name)를 로마자로 표기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괄호 안에 그 속성을 영문으로 병기할 수 있다.”고 쓰여 있다. 이를테면, 국사봉 Guksabong (Peak), 조계사 Jogyesa (Temple) 등으로 표기하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학계에서는 이런 식의 표기는 쓰이지 않고 있다.

24) 이것은 어떤 이름을 표기할 경우 그것이 유래한 지역의 발음으로 표기한다는 원칙이다. 중국의 전적 『기신론』은 ‘*Qixin lun*’으로 표기되지만 한국의 전적인 『기신론소』는 ‘*Gisinnon so*’로 표기되는 게 그 하나의 사례다.

25) 「외래어표기법」 4장 2절 제1항 “중국 인명은 과거인과 현대인을 구분하여 과거인은 종전의 한자음으로 표기하고, 현대인은 원칙적으로 중국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 한자를 병기한다. 제2항 중국의 역사 지명으로서 현재 쓰이지 않는 것은 우리 한자음대로 하고, 현재 지명과 동일한 것은 중국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 한자를 병기한다.”

26) 각 나라로 전파되어 토착화 과정을 거쳐서 확립된 종파는 각 나라의 원음인

마자표기하는 경우에는 그 논문의 원지음을 그대로 음사해야겠지만 일반적인 서술의 경우에는 위에서처럼 달리해 주면 될 듯하다.

2. ‘Seon’인가 ‘Zen’인가?

앞의 〈사례 2〉에서 살펴본 것처럼 학술지에서 검색해본 ‘간화선’의 표기 사례는 20여 가지가 되었다. 일반적으로 서구 학계에서 ‘선’은 일본식 발음으로 ‘Zen’ 혹은 ‘Zen Buddhism’으로 표기하고 있다. 선이 이렇게 Zen으로 미국사회에 널리 퍼져있기 때문에 ‘한국의 선’도 ‘Seon’이 아니고 ‘Zen’이라고 표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미국의 대중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일 것이다. 미국사회에 Zen이 도입된 지가 백 년이 넘으니 말이다. 이렇듯 대중의 인지도를 고려한다면 Zen으로 하는 것이 타당성 있어 보인다. 혹자는 또 ‘Zen’이든 ‘Seon’이든 ‘Chan’이든 셋 다 같은 禪인데 구태여 구분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할지도 모르겠다. 이들의 주장은 선이 지금 이 순간에 사람들에게 행복과 자유를 준다면 그 본래의 역할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저 멀리 선종의 초조 보리달마로부터 한국, 일본 등으로 전파된 모든 형태의 선은 그 본령이 하나이므로 한국, 일본, 미국의 선도 결국 하나라는 것이다. 필자도 물론 ‘Chan’이든, ‘Seon’이든, 일본의 ‘Zen’이든, 미국의 ‘Zen’이든 다 같은 禪일뿐 아니라 이들 모두 空(sūnyatā)과 無我(anātman)를 체득하여 무애자재한 삶을 살고자 하는 목적도 어

‘Chan’(중국의 선), ‘Seon’(한국의 선), ‘Zen’(일본의 선) 그리고 ‘Jingtu’(중국의 정토종), ‘Jeongto’(한국의 정토종), ‘Jodo’(일본의 정토종)로 로마자표기 된다. 임제선을 ‘Linji Chan’, ‘Imje Seon’, ‘Rinzai Zen’으로 표기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다.

느 정도 공유하고 있다고 본다.

그런데 선을 연구하는 서양학자들은 이러한 대중들과 생각이 다른 듯하다. 필자가 아는 한 그들은 일반적인 ‘선’의 경우 Zen이라고 표현한다고 해도 구체적으로 ‘중국의 선’은 ‘Chan’으로, ‘한국의 선’은 ‘Sŏn’으로, ‘일본의 선’은 ‘Zen’으로, 그리고 ‘미국의 선’은 ‘American Zen’으로 확연히 구분한다. 필자도 역시 이에 공감하고 있으며 아울러 한국 ‘선’의 표기가 ‘Zen’이 아니고 ‘Seon’이 되어야 한다는 나름의 논거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한국의 ‘선’을 ‘Seon’으로 표기해야 한다는 첫 번째 논거는 한국어의 ‘선’에 대한 로마자표기는 ‘Zen’이 아니라 ‘Seon’이라는 것이다. ‘Zen’이 미국사회에서 일반화된 표기라고 해서 미국대중을 로마자표기의 기준으로 삼아서 ‘Zen’으로 표기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우선 한글의 로마자표기는 미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고, 다음으로 한국어의 선을 ‘Zen’으로 표기한다면 한글의 선사, 선승, 참선 등 한국의 ‘선’ 관련 용어도 ‘젠지’, ‘젠소’, ‘산젠’ 등의 일본선의 용어로 표기해야 되니 이것 역시 합당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한국의 선이 미국에서 ‘Zen’으로 표기된다면, 아직 ‘Zen’이란 용어가 일반화되지 않은 유럽, 아프리카 등지로 전파될 때도 한국 선은 역시 ‘Zen’으로 불리게 될 것이다.

한국 선을 ‘Zen’이 아니라 ‘Seon’으로 표기해야 한다는 두 번째 논거는 젤과 선의 涵意가 다르다는 것이다. 오늘날 미국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Zen’과 한국사회에서 통용되는 ‘Seon’이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까? 필자는 미국 ‘Zen’의 의미를 한국어의 ‘Seon’이란 표현에 답할 수 없고 한국 ‘Seon’의 의미 역시 미국의 ‘Zen’이란 표현에 답할 수 없을 정도로 두 표현의 함의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미국사회에서 선, 특히 일본 선은 일본 임제종 선사 샤쿠 소엔

(1860~1919)의 제자인 스즈키 다이세츠(1870~1966)에 의해 20세기 초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이후 미국의 선은 2차 대전 이후 붐이 일어났고 이후 지속적으로 미국사회, 특히 엘리트 계층에 확산되어 갔다.²⁷⁾ 미국에 확산된 것은 일본 선이지만 일본의 전통적인 선불교와 다르다고 알려져 있다. 미국의 선이 일본 선과 마찬가지로 ‘Zen’이라는 명칭으로 불리지만 일본 선과 다르다고 보는 것은 D. T. 스즈키가 미국 땅에 소개했던 탈 역사적, 신비적, 인식론적 선의 영향,²⁸⁾ 하라다 - 야수타니 계통의 삼보교단의 영향,²⁹⁾ 그리고 이제는 미국본토 출신의 지도

27) James Coleman, *The New Buddh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pp.7-8. “서양으로 건너온 최초의 불교전통은 일본 선이었다. 일본 임제종의 선사 샤쿠 소엔이 시카고 세계종교의회(1893)에서 연설을 하고, 그의 제자 D. T. 스즈키는 자신의 역설적인 선사상을 담은 저술을 많은 서구에 소개함으로써 지식인들을 매료했다. 1950년대 무렵의 대다수의 교육받은 서양인들은 적어도 선불교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이 기간 동안 ‘비트세대’의 젊은 보헤미안들은 선을 일종의 지적인 護符로서 그리고 그 당시의 사조에 대한 도전으로서 받아들였다. 그 이후 20년 간 ‘선붐(Zen Boom)’이 일어났다. 이때 최초로 많은 서양인들이 실제 불교수행을 시작했다. 이런 제1차 선의 열풍이 가라앉을 무렵, 북미의 주요 도시의 주택지역에 선원들이 생겨났으며 젠은 서양의 종교적 존재물로서 확고히 자리 잡았다.” 이후 1950년대 중국이 티베트를 점령하면서 티베트의 이주민들이 문화와 종교를 가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미국에도 1960년대 중반에 티베트 불교가 도입되었으며 위빠사나는 그 이후 미국인들에 의해 도입되어 미국사회에 빠르게 확산되었다.

28) 스즈키에 의하면, 禪은 “그 직관적 가르침이 서로 방해되지만 앎다면, 거의 어떤 철학이나 도덕 교리와의 부합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유연하다. 무정부주의나 파시즘, 공산주의나 민주주의, 무신론이나 이상주의, 혹은 어떤 정치·경제적 독단론과도 맞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Suzuki D. T., *Zen and Japanese Culture*,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9, p.63 참조.

29) 三寶敎團은 1954년 하쿤 야수타니(1885~1973)에 의해 설립된 현대적 개혁종단이다. 삼보교단의 선 스타일은 견성체험을 전적으로 강조하기로 유명하

자들이 일본인 로시를 대체하게 되면서 전통적인 불교와 단절이 심화되면서 불교모더니즘적인 성향이 더 강화되고 개인의 영성체험에 치중해가고 있기 때문이다.³⁰⁾

불교모더니즘이란 전통적인 불교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미국적인 풍토에 맞게 변용하여 수용하는 것으로, 미국의 선불교 역시 동아시아의 전통적 의례의식이 미국적인 풍토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심지어 불교라는 종교성마저도 배격하고 있는 추세가 늘고 있다. 그리하여 미국 선은 다른 어떤 사상과 종교와도 부합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미국 선은 이렇게 되면 ‘Zen Buddhism’이 아니라 불교라는 종교성이 배제된 보편적인 영성수련의 한 방법으로 간주되면서 기독교를 비롯한 다른 종교에서도 사용되어 Christian Zen, Catholic Zen이 되기도 한다. 한국의 Seon이 무상과 무아, 연기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空性을 체득하기 위한 대승불교의 수행전통에 속해 있다면 미국의 Zen은 그것의 모태인 일본 선과도 다르고 심리치료 및 다른 영성수련

며 조동종, 임제종, 황벽종 등의 일본 전통 선의 모델과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규모가 작지만 삼보교단은 서양의 선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이 재가자 선운동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미국의 선스승들은 마에즈미 타이잔, 필립 카플로, 로버트 아이트켄, 에이도 타이 시마노 등이 있다. Robert H. Sharf, “Sanbokyodan: Zen and the Way of the New Religions,” *Japanese Journal of Religious Studies*, 1995, 22/3 - 4, p.419 참조.

- 30) 불교모더니즘은 종교의 의례와 형이상학적 요소들을 의도적으로 경시한다. 이런 요소들이 현대의 담론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수행 가운데 세상문제에 대한 초연함, 신앙활동, 의식과 보살서원은 문화적으로 우연적인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없어져도 무방하고 때로는 불편하고 실현불가능하다고 인식된다. 불교 모더니즘에 대한 비판적 견해는 Robert H. Sharf, “Losing Our Religion,” *Interview in Tricycle*, 2007 Summer, pp.44 - 49 참조.

과 활발히 접목해가면서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 가고 있다. 필자가 한국 선을 ‘Zen’이 아니고 ‘Seon’으로 표기하자고 주장하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종교성이 배제되고 정체성이 희박해지고 미국화한 Zen에 한국 선을 담을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런 문맥에서 볼 때 ‘간화선’ 역시 그 로마자표기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불교계에서 간화선의 세계화를 말할 때, 그 간화선이란 옛날 중국의 간화선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한국 간화선’을 말할 것이다. 중국의 kanhua Chan이 역사 속에, 문헌 속에서 살아있는 선이고, 일본의 kanna Zen 역시 존재감을 찾을 수 없는 문헌 속의 선이라면 한국의 Ganhwaseon은 800여 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있는 불교의 전통이다. 또한 한국은 간화선에 대한 학술적 담론과 연구도 가장 활발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한국 간화선’의 적절한 로마자표기는 무엇일까? 바로 ‘Ganhwaseon’이라고 본다. 이런 표기가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까닭은 첫째, 한국에서는 선이라고 하면 바로 간화선을 의미할 정도로 ‘간화선’은 ‘선’ 자체와 동일시 되어왔다. 이런 전통을 감안하여 ‘간화선’이란 단어를 ‘간화’와 ‘선’으로 분리하지 않고 한 단어로 표기한 것이고, 둘째, 간화선이라는 단일한 선수행의 긴 역사와 현재의 고유성을 반영하여 ‘간화선’을 ‘선’과 대등한 자격으로 간주하여 대문자 표기가 하는 것이다. 서양의 학자들은 이와 달리 간화선을 일반적으로 ‘선’ 앞에 여러 가지 수식어가 붙은, 이를테면 ‘조사선’(patriarchal Chan), ‘묵조선’(mozhaos Chan), ‘염불선’(chanting Chan) ‘문자선’(letter Chan)처럼, 많은 선 전통 중 하나로 인식하는 것 같다. 그리하여 간화선이란 단지 ‘간화(화두참구)하는 선(ganhwa Seon)’이라고 간주하기 때문에 그들은 간화선을 ‘kanhua Chan’(중국의 간화선) 혹은 ‘kanhwa Sŏn’(한국의 간화선)이라고 즉, ‘간화’와 ‘선’을 분리 표기

함으로써 간화선이 여러 가지 유형의 선 중 하나일 뿐이고, 또 ‘간화’ 부분을 소문자표기하여 간화선의 고유성보다는 일반성을 표현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그런데 ‘Ganhwaseon’이란 표기는 ‘한국 간화선’을 지칭(reference)할 때로 국한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칭적 사용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간화선(한국의 간화선도 포함)에 대한 속성을 기술(description)하는 용법일 경우 그 로마자표기도 서양언어의 통사적 관습과 문맥에 따라서 ‘ganhwa Seon’, ‘Ganhwa Seon’, ‘Ganhwa - seon’, ‘Ganhwa seon’ 등 여러 가지 異形의 표기도 가능하리라 본다. ‘화두’도 앞의 사례가 보여주듯 현행 로마자표기 규칙에 맞지 않게 표기되는 경우가 많다. 규정대로 표기한다면 ‘hwadu’다. 사실 일반적인 간화선(ganhwa Seon)에서 ‘간화’란 ‘화두를 참구한다’는 의미이므로 ‘간화선’은 ‘화두선’(hwadu Seon)이라고 할 수 있겠다.³¹⁾ 그런데 ‘화두’는 중국어 병음표기로 ‘huatou’이고 문광부 표기로는 ‘hwadu’이므로 이것도 역시 원음표기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따라서 중국 대혜종고 선사의 화두는 ‘Dahui Zhonggao’s huatou’로, 고려 지눌 선사의 화두는 ‘Jinul’s hwadu’로 표기가 정착되기를 희망해본다.

3. 띄어쓰기

앞서 언급했듯이 MR방식뿐 아니라 현행 로마자표기법은 한글 자모음의 로마자전환 규칙을 위주로 만들어졌으며 띄어쓰기와 대문자 사

31) 앞의 KCI 사례에서 간화선을 공안선이라고 표기한 경우가 있으나 화두와 공안이 서로 개념의 차이가 있고 실제 두 선수행의 방법은 크게 다르기 때문에 화두선은 일본의 공안선(koan Zen)과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용 등 통사적 규칙이 정해져 있지 않다. 이러한 규칙의 부재로 인하여 앞의 Ⅱ 장의 〈사례 3〉에서 보았듯, 논문제목과 저서명의 로마자표기 등에 일관성이 없는 경우가 많다. 불교용어의 표기에는 이런 규칙이 꼭 필요하므로 로마자전환 규칙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띄어쓰기와 대문자 사용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제시해보고자 한다.

1) 띄어쓰기의 기본원칙

(1) 9개의 품사(명사, 대명사, 형용사, 관형사, 동사, 부사, 조사, 수사, 감탄사)는 서로 띄어 쓴다.³²⁾ 일반적으로 접사³³⁾는 독립된 품사로 간주하지 않는다.

(2) 음절이 긴 용어는 그 의미를 고려하여 단어를 나누어 쓴다.³⁴⁾

2) 관직명이나 호칭은 앞뒤의 말과 띄어 쓴다. 음절이 긴 칭호의 경우 의미를 손상하지 않으면서 음절을 나눈다.

(보기) 장희빈 Jang Huibin, 명성태황후 민씨 Myeongseong Tae Hwanghu
Min Ssi, 정경부인 밀산 박씨 Jeonggyeong buin Milsan Bak Ssi,
혜덕왕사 Hyedeok Wangsa, 법전종정 Beopjeon Jongjeong, 초

32) 한국어의 띄어쓰기 규칙과 동일하나 다만 助詞의 경우 한국어와 다르게 앞말과 띄어 쓴다.

33) 단독으로 쓰이지 아니하고 항상 다른 語根이나 단어에 붙어 새로운 단어를 구성하는 부분. 接頭辭와 接尾辭가 있다. ‘재조명’에서 ‘재-’, ‘신불교’에서 ‘신-’, ‘조계사’에서 ‘-사’, ‘불교적’에서 ‘-적’ 등이 불교용어로 많이 쓰이는 접사의 사례가 될 수 있다.

34) ‘음절이 길다’는 의미는 자의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보통 5자 이상의 한자어로 구성된 옛 서적의 명칭으로 이해하면 될 듯하다. 이런 경우 그 의미를 고려하여 보통 2-3음절 단위로 끊어서 표기하면 될 것이다.

의의순 선사 Choui Uisun Seonsa 등.

3) 기관, 단체의 이름과 역사적 사건의 이름은 단어별로 띄어 쓰고 각 단어는 대문자로 표기한다.

(보기) 동국대학교 Dongguk Daehakgyo, 선리연구원 Seolli Yeon-guwon, 갑오경장 Kabo Kyeongjang, 임진왜란 Imjin Waeran, 정중부 난 Cheong Chung-bu Nan 등.

4) 지형지물(산, 강, 도, 령, 재 등), 인공적인 축조물(殿, 각, 당, 루, 문, 교, 탑, 祠 등), 사찰명(寺, 庵 등), 불교용어(宗, 齋, 승, 법 등) 등 총칭적 의미의 명사접사는 앞말과 붙여 쓰되 의미상 분리 가능할 경우 띄어 쓴다.³⁵⁾

(보기) 한라산 Hallasan, 독도 Dokdo, 낙동강 Nakdonggang, 독립문 Tongnimmun,

35)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제3장 6항. “자연 지물명, 문화재명, 인공 축조물명은 붙임표(-) 없이 붙여 쓴다.” 그러나 이런 명칭들은 서양언어의 관습에서는 어말의 1음절 명사접미사를 독립된 단어로 띄어 쓰는 경향이 있으므로 필자는 이런 경우 원칙적으로 붙여 적되 문맥과 의미에 따라서 띄어쓰기를 제안한다. 한편 서울시의 「영문표기 사전」에는 “한글을 언어 및 발음체계가 상이한 로마자로 옮기기 위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만으로는 지명, 인명, 기관명, 문화재명 등 다양한 한글 명칭을 모두 영문으로 표기하기에 불충분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한 기준과 용례를 마련”한다고 밝히면서 “산, 강, 섬, 사찰, 교량, 문화재 등의 경우에는 그 명칭 전부(full name)를 로마자로 표기하고 외국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 속성을 영문으로 표기하거나, 괄호를 사용하여 병기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다음의 사례를 들었다. 남산 Namsan(Mt.), 국사봉 Guksabong(Peak), 한강 Hangang(River), 여의도 Yeouido(Island), 조계사 Jogyesa(Temple), 경복궁 Gyeongbokgung(Palace). 이런 표기법은 전국의 교통표지판의 표기기준이 되었지만 불교학자들의 경우 이런 표기를 따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한계령 Hangyeryeong, 박달재 Bakdaljae, 무량수전 Muryangsujeon, 다보탑 Dabotap, 칠성각 Chilseonggak, 조사당 Josadang, 보제루 Bojeru, 불이문 Burimun, 연화교 Yeonhwagyo, 表忠祠 Pyochungsa, 조계사 Jogyesa, 관음보살상 Gwaneum bosalsang, 自在庵 Jajaeam, 태백산맥 Taebaek sanmaek 김해평야 Kimhae pyeongya, 개마고원 Kaema gowon, 수동계곡 Sudong valley, 범어사 삼층 석탑 Beomeosa samcheung seoktap,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 Gwanchoksa seokjo Mireuk bosal ipsang, 월정사 석조 보살 좌상 Woljeongsa seokjo bosal jwasang, 臨濟宗 Imjejong, 戒律宗 Gyeuljong, 천도재 Cheondojae, 생전예수재 Saengjeon Yesujae, 사찰령 Sachallyeong 등.

5) 史書명은 의미상 단어별로 나누어 이탤릭체로 적는다. 첫 단어는 대문자로, 나머지는 소문자로 적되 고유명사는 대문자로 한다. 위의 경우처럼 經, 史, 論, 疏, 集, 誌, 選, 傳 등 1음절의 총칭접미사로 끝나는 책 제목은 앞말에 붙여 쓰되, 의미상 분리 가능하다.³⁶⁾

(보기) 『삼국사기』 *Samguk sagi*, 『동국여지승람』 *Dongguk yeoji seungnam*, 『훈민정음』 *Hunmin jeong-eum*, 『용비어천가』 *Yongbi eocheonga*,

36) 바로 위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서명의 총칭적 명사접사의 경우 서구학자들은 이런 명사접사의 경우 앞말과 띄어 쓰는 경우가 많다.

보기) 조사당 Chosa dang, 지장전 Chijang chŏn, 『심청전』 *Simch'ŏng chŏn* 등. *Encyclopedia of Buddhism*에서 발췌; 대웅전 daeung jeon, 『금강경』 *Geumgang gyeong*, 조계종 Jogye jong, 閼嶠山 Sagul san, 『看話決疑論』 *Ganhwa gyeorui ron*, 간화선 ganhwa seon 등. *Digital Dictionary of Buddhism*에서 발췌; 『十門和諍論』 *Sim-mun hwa-jaeng-non*, 『釋門家禮抄』 *Sŏng-mun ka-rye ch'o*, 『誠初心學人文』 *Kye ch'o-sim hak-in mun*, 『海印寺重修記』 *Hae-in-sa chung-su ki*, 『釋華嚴教分記圓通鈔』 *Sŏk hwa-ŏm-gyo pun-gi wŏn-t'ong ch'o* 등. *The Korean Buddhist Canon: A Descriptive Catalogue*에서 발췌.

『법화경론술기』 *Beophwa gyeongnon sulgi*, 『금강경』 *Geonganggyeong*,
 『반야심경』 *Banya singyeong*, 『고려사』 *Goryeosa*, 『朝鮮佛教維
 新論』 *Joseon Bulgyo yusinnon*, 『看話決疑論』 *Ganhwa gyeoruiron*,
 『圓覺經慶讚疏』 *Wongakgyeong gyeongchanso*, 『海東疏』 *Haedongso*,
 『禪門拈頌集』 *Seonmun yeomsongjip*, 『海東高僧傳』 *Haedong
 goseungjeon*, 『三彌勒經疏』 *Sam Mireuk gyeongso*, 『大乘起信論疏』
Daeseung gisinnonso, 『新譯華嚴經疏』 *Sinyeok Hwaem gyeongso*,
 『解深密經疏』 *Haesimmil gyeongso*, 『攝大乘論疏』 *Seop daeseung
 nonso*, 『成實論疏』 *Seongsil lonso*, 『法華宗要』 *Beophwa jongyo*,
 『大覺國師文集』 *Daegak guksa munjip* 등.

띄어쓰기에 있어서 문광부의 표기규정과 서구의 언어관습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는데 필자는 이런 경우 융통성 있는 접근이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서양인들은 ‘조계사’의 경우, ‘Jogyesa’, ‘Jogye sa’, ‘Jogye -sa’, ‘Jogye Sa’ 혹은 번역하여 ‘Jogye Temple’ 등으로 그리고 『高麗史』의 경우 ‘Goryeosa’, ‘Goryeo sa’, ‘Goryeo -sa’, 혹은 ‘Goryeo Sa’ 등으로 표기한다. 그렇다면 어말의 총칭명사를 고유명사의 일부로 간주하여 앞말에 붙여 쓴다는 것은 한글에서는 맞지만 서구의 언어관습에서는 다를 수 있다. 필자는 로마자표기에 한글의 제반 특성을 다 담을 수는 없고 또 표기의 결과물은 서구의 독자를 주요 대상으로 삼는다고 할 때 그들의 언어관습도 존중해야 한다고 본다. 인간의 언어는 수학이나 과학의 언어와 다르게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상황 의존적이고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도 그 표현방식이 매우 다양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방식을 존중하는 것이 표기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다만 내용의 전달력이 높이기 위해 다소 변용하는 것이라면 허용 가능하

고 본다.

4. 대문자 사용

1) 고유명사(인명과 지명), 그리고 그 축약형은 대문자로 표기한다.
(보기) 해남 땅끝 Haenam Ddang - ggeut, 한중 불교 Han - Jung Bulgyo,
이광수 Yi Gwangsu, 한용운 Han Yong - un 등.

2) 단체 및 기관의 이름 혹은 그 축약형은 각 단어를 대문자로 표기한다.

(보기) 불교문화연구원 Bulgyo Munhwa Yeonguwon, 인도철학회 Indo
Cheolhakhoe 등.

3) 관직명, 호칭이 다른 이름과 함께 사용될 경우 대문자로 표기한다.³⁷⁾
(보기) 법련사 주지 보경스님 Beomnyeonsa Juji Bogyeong Seunim, 지광
거사 Jigwang Geosa 등.

4) 도서, 정기간행물, 총서의 제목은 첫 단어를 대문자로 표기한다.
제목 중에 포함된 고유명사는 대문자로 표기한다.

(보기) 『선가귀감』 Seonga gwigam, 『고려의 선사상』 Goryeo ui Seon
sasang, 『조선불교통사』 Joseon Bulgyo tongsa, 『조사선에 있어
서의 무심사상』 Josaseon e isseoseoui musim sasang, 「서산대사
의 선교관에 대하여」 "Seosan daesa ui seongyogwan e daehayeo",

37) 관직명이나 스님의 호칭(선사, 율사, 화상 등)이 일반적, 총칭적 의미로 서술
되는 경우 소문자로 사용된다. (보기) 선사 seonsa, 황후 hwanghu 등.

「원효의 생애와 그 사회적 성격」 “Wonhyo ui saengae wa geu sahoejeok seonggyeok” 등.

5) 역사적 사건의 이름은 각 단어를 대문자로 표기한다.

(보기) 삼국통일 Samguk Tong-il, 불교정화운동 Bulgyo Jeonghwa Undong 등.

6) 역사적 시대의 이름은 대문자로 표기한다.

(보기) 신라시대 Silla sidae, 통일신라시대 Tong-il Silla 등.

7) 왕조의 명칭은 대문자로 표기한다.

(보기) 조선 육백년 Joseon yukbaengnyeon, 명청 시대 Myeong - Cheong sidae 등.

8) 민족과 언어의 이름은 대문자로 표기한다.

(보기) 고려인 Goryeoin, 일본인 Ilbon-in, 중국어 Jungguk-eo

9) 종교, 종파, 경전은 대문자로 표기한다.

(보기) 불교 Bulgyo, 도교 Dogyo, 기독교 Gidokgyo, 禪 Seon, 임제종 Imjejong, 금강경 Geumganggyeong 등.

10) 고유명사가 복합어를 이루어 보통명사로 변할 경우 소문자로 표기한다.

(보기) 선원 seonwon, 佛畵 bulhwa 등.

V. 맺음말

지금까지 필자는 불교학술논문의 초록에서 한국불교용어에 대한 로마자표기의 현황을 분석하고, 서구불교계의 한국불교용어 표기와 비교·검토하여, 한국어의 특성과 영어의 특성을 반영하는 바람직한 표기법을 제시해보았다. 우선 표기 현황을 살펴본 결과 ‘선’, ‘간화선’과 같은 대표적인 용어가 일관성 없이 학자마다 자의적으로 표기되는 경우가 많았다. 역사적 인물의 이름이나 화두 등의 표기도 마찬가지였다. 일관성 있는 표기가 해외학계에 한국불교의 존재감을 심어주는 데 중요하다는 생각 하에, 필자는 우선 문광부 방식과 MR방식의 로마자표기의 명확한 구분이 필수적이라고 여기고 두 방식을 도표로 제시하여 혼합표기가 시정되기를 기대해 보았다. 인명의 표기도 문광부 방식으로 통일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어서 필자는 ‘한국 선’의 로마자표기가 ‘Zen’이 아니고 ‘Seon’이 되어야 하는 논거를 제시해 보았다. 한국 선의 로마자표기가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두 어휘가 어원을 공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역사와 현재의 모습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 필자가 주장하는 요지다.

현재 문광부의 로마자표기법은 띄어쓰기나 대문자 표기 규정이 없는데 불교표기에서는 이런 규정이 꼭 필요하다. 로마자표기 규정은 한국어 자모의 발음을 기준으로 정했지만, 각 단어에 대한 통사 규칙은 한국어뿐 아니라 서양언어의 관습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했다. 그 주요 대상이 서양인임을 감안해서 말이다. 그리하여 현행 규정과 모순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리고 현재 서구 학계에서 통용되는 한국불교의 로마자표기 사례들을 비교, 분석하여 필자 나름의 규정을 제

시해 보았다. 그러나 필자가 제안한 규칙은 여러 사례를 분석한 후 나름대로 제시한 가설일 뿐 합의를 통해 도출된 결론은 아니다. 필자는 다만 일관성 있는 표기의 필요성과 시의적절함에 공감하는 담론이 형성되어 더욱 완전한 로마자표기규칙이 나오기를 희망해 본다.

글을 마무리하면서 로마자표기의 정착을 통해서 한국불교계에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해 본다. 첫째, 한국불교 내에서 로마자표기에 대한 담론이 형성되어, 학제적 연구를 거친 후, 한국불교용어를 일관성 있게 표기할 완전한 규칙이 탄생하기를 기대해 본다.

둘째, 표기법의 정립을 통해서 서구불교계와 교류가 활발해지고, 동시에 한국불교 연구의 질도 향상되기를 기대해 본다. 중국불교뿐 아니라 티베트 불교, 남방불교가 서로 어울려 있는 서양불교계와 교류를 통해서 한국불교계의 시야가 넓어지고, 또 서양학계의 실용적인 학문 풍토, 즉 사상적, 사변적인 담론보다는 현대인의 삶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환경, 일상생활 등의 문제와 불교의 관계를 다루는 경향은 국내 학계에도 신선한 자극이 될 것이다.

셋째, 서구불교 학계에 한국불교용어의 올바른 로마자표기가 정착되기를 기대해 본다. 표기가 제각각인 현재 상황에서 서구의 학자로 로마자표기를 통해 국내 연구업적에 접근하기는 불가능하다. 정확한 초록은 서구학자에게 한국불교에 접근하고 소통하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

넷째, 로마자표기의 담론을 통해서 연구업적에 대한 불교학계의 인식전환을 기대해 본다. 학문의 업적은 국내용이 아니라 전 세계인이 공유할 지적자산이라고 본다. 따라서 인류의 無名을 걷어내고 밝은 깨우침으로 인도하는 길잡이 역할을 하는 학술연구에서 비록 로마자표기가 국내학술연구의 심사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자의적으로 표기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참고문헌

- 이평래, 「불교학술용어표준화사업의 미래상」, 『한국불교학』 제39집, 서울: 한국불교학회, 2004, 1 - 67면.
- 정희원, 「역대 주요 로마자 표기법 비교」, 『새국어생활』, 7권 2호, 서울: 국립국어연구원, 1997, 1 - 67면.
- _____, 「성씨 표기안 제정 추진 경과 및 표기 시안」, 서울: 국립국어연구원 미출판물, 2009, 1 - 11면.
- 동국대 불교학술원 종학연구소(편), 『제2회 간화선 국제학술대회: 간화선, 그 원리와 구조』,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2011, 1 - 397면(1권), 1 - 334면(2권).
- 문화관광부,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문화 관광부 고시 제 2000 - 8호, 2000. 7. 7, <http://www.korean.go.kr>
- 국립국어원, 『로마자표기 용례사전』, 2000.
- 서울시, 「한글명칭 영문표기 원칙」, 2002, <http://www.englishname.seoul.go.kr>
- 문교부, 「외래어 표기법」, 문교부 고시 제85 - 11호, 1986. 1. 7.
-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http://www.kci.go.kr>
- Digital Dictionary of Buddhism* edited by Charles Muller. <http://buddhism-dict.net/ddb>.
- Lewis R. Lancaster and Park Sung - bae, *The Korean Buddhist Canon: A Descriptive Catalogue*,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0. <http://www.hm.tyg.jp>
- Robert E. Buswell Jr., “Bibliography,” *The Korean Approach to Zen: The Collected Works of Chinul*, Univ. of Hawaii Press, 1983, 417 - 437면.
- James Coleman, *The New Buddh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 Suzuki D. T., *Zen and Japanese Culture*,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9.
- Robert H. Sharf, "Sanbokyodan: Zen and the Way of the New Religions," *Japanese Journal of Religious Studies*, 1995, 22/3 - 4, pp.417 - 458.
- _____, "Losing Our Religion," Interview in *Tricycle*, 2007 Summer, pp.44 - 49.

약호

- RKL: "Romanization of the Korean Language, based upon its Phonetic Structure," McCune, G.M. & Reischauer, E.O.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Vol. 29, Seoul, 1939.
- ROK: "The Romanization of Korean According to the McCune - Reischauer System,"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Vol 38, Seoul, 1961. pp. 121 - 128.
- KRWD: "Korean Romanization and Word Division," The Library of Congress, 1997, <http://www.loc.gov/catdir/cpsd/romanization/korean.pdf>

〈Abstract〉

On the Romanization of Korean Buddhist Terms

Jang, Eun - hwa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current use of romanization of Korean Buddhist terms; to analyze it in comparison with some typical examples by foreign scholars; and to propose the author's own prescription. To serve the purpose, the author made a case analysis of romanized Korean Buddhist terms as shown in the Korean Citation Index(KCI) and then pointed out not a few inconsistent romanizations of Korean Buddhist proper names and key technical terms. To help one understand the transcription of the Korean Language, the author first of all presented the two standard rules currently being used, the one by the government(2000) and the other by McCune - Reischauer(1939), while at the same time demonstrating the different transcriptions of personal names between the two.

Both the present rules lack the principles for word division and capitalization despite their necessity for the Buddhist romanization. Thus, the author emphasized that the transcription for Korean consonants and vowels should follow the existing governmental system, but that the syntactic rules like word division should reflect the feature of both Korean and western languages like English. Besides, the present author made it

clear that the principle of transcribing by indigenous sound should be applied to the technical terms in general as well as to the proper names. Next, he investigated which is the appropriate romanization for ‘한국 禪’, ‘Korean Seon or Zen’, and extended such discussion to other Korean Seon Buddhist terms like ‘간화선’ and ‘화두’. Finally the author proposed some principles for syntax, viz., word division and capitalization, and also several expected effects of correct romanization for the Korean Buddhist terminology.

Key Words: Korean Buddhist terms, romanization, McCune–Reischauer, Korean Seon, Ganhwaseon, transcription by indigenous sound.

